· 알카리건전지 : 1.50V+0.15V, −0.05V

3. 의견제출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업진흥청장(참조 : 기준조정과장, 전화 503-793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품목(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이유)과 검사기준에 반영되도록 희망하는 사항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國內外 情報 ◈

次世代 斷熱材등 연구

−日本電機工業會 10社와 공동개발 추진−

일본전기공업회는 전기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차세대 단열재등을 연구하는 위원회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공업회가 설치하는 위원회등은 '고효율 차세대 단열재 및 발효제 개발연구실'과 '고효율 기기개발 특별위원회'로 연구실은 도시바·마쓰시타冷機등 10社가 참여, 냉장고를 비롯한 가정용 전기기기용 차세대 단열재 연구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전기공업회는 또 도시바·히타치 등 냉장고를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메이커 10社가 초가을부터 특정프레온을 사용하지 않은 지구환경에 무해한 냉장고를 잇따라 판매에 나서는 것과 관련, 종래의 냉장고와의 구별을 명확히 하는 동시 지구환경보호의식의 고양을 위해 '신형 냉장고 통일마크'와 '96 특정프레온규제 대응 냉장고 및 냉동고'등 로고와 일러스트를 제정했다. 이들 로고등은 제품 본체의 도어 앞면에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게 된다.

한편 10사가 판매하게 될 신형 냉장고는 냉매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CFC-12대신 HFC-134a 또는 HCFC-22를, 단열재인 우레탄수지의 발포제에는 CFC-11의 대체품으로서 HCFC-141b·HCFC-142b·HCFC22 가운데서 한가지를 선택, 채용한다.

도시바·히타치외에 마쓰시타전기산업·코로나·산요전기·샤프·NEC홈 일렉트로닉스·후지쓰제너럴·미쓰비시전기를 포함한 10社는 가을부터 연말까지 신형 기종을 차례로 판매할 계획인데 95년말까지 일본내수용은 모두 이들 제품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日 종합 電機메이커들 下請企業자립을 支援

-受注확대 알선해주거나 業種전환 돕기도-

엔高정착으로 일본기업의 하청구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미쓰비시·히타치등 綜合電氣機器 메이커들이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는 한편 하청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펴고 있다.

구체적 움직임을 보면 미쓰비시電機는 일감이 적어진 AV(音響·映像)기기 관련 하청기업에 관리사원을 파견, 미쓰비시이외 기업으로부터의 수주를 늘리도록 지도하기 시작했으며 히타치제작소도 전담팀을 구성, 자동차용 전자부품 하청업체의 업종전환을 전면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종합전기메이커들의 생산거점 해외이전으로 일어나는 하청기업의 고용문제나 급격한 경영악화를 완화시켜, 독자적인 힘으로 살아남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일환으로 미쓰비시전기는 최근 AV기기부문의 하청메이커 3사에 대해 8명의 관리직사원을 거래확대지도를 위해 파견했다.

파견기간은 3년이며 하청메이커에선 부과장직책으로 수주확대를 돕게 된다.

신규사업의 모색과 기술지원, 고용대책 등도 지도하게 되는데 경기회복이 늦어질 경우 AV이외 분야에서도 똑같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파견대상 기업도 늘릴 예정이다.

한편 히타치제작소는 자동차기기사업부가 약 5명으로 구성된 하청기업지원팀을 2개조 구성, 1개월단위로 하청기업에서 직접 업종전환지도를 펴고 있다.

고객개발·생산공정의 근대화계획을 직접 돕는 외에 컨설팅회사도 알선한다.

한편 마쓰시타사는 이보다 앞서 관련회사에 상담창구를 설치하는등 하청기업의 자립을 지원하는 계획을 수립, 실천에 옮기고 있다.

모로코, 發電設備 수입관세 부과 유예
-금년말까지 限時的으로-

모로코 동력부는 지난 7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모로코내 輸入되고 있는 중소형 자가발전설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수입관세부과를 유예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모로코정부의 발전설비 輸入關稅 유예조치는 근본적으로 모로코의 발전용량 부족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모로코는 전체 발전용량의 90% 이상이 수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3년간 절대 강우량 부족으로 일반 주택단지는 물론이고 생산공장등이 입주한 공단이나 도심의 사무실 밀집지역이 예고없이 단전되는 어려움을 겪은바 있다.

따라서 금년말까지 생산공장은 물론이고 웬만한 규모의 빌딩 등에서 발전설비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우리업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모로코에 수입되는 발전설비 시장에는 현재 프랑스·이탈리아 및 日本製品이 주로 진출중에 있어 이번 關稅 유예조치는 우리제품의 진출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여진다.

상품분류코드	세 부 품 목
85021100	압축점화식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로서 출력 75kVA 이하인 것
85021200	출력 75kVA 이상 375kVA 이하인 것
85021300	출력 375kVA 이상의 것
85022000	불꽃 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85023000	기타의 발전세트
85024000	회전변환기

이란, 外國업체로부터 技術移轉 추진

-部品·原料도, 기술·생산력 向上위해-

이란은 Pars Electric社 등 23개 주요 제조업체에서 쿨러, 히터, 냉장고, 세탁기, 흑백TV, 스위치, 플러그, 트랜스포머, 인쇄회로기판 등을 생산하고 있다. 기술 수준은 70년대 수준이며 국내 생산으로 수요의 20% 정도를 충족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컬러TV의 생산은 91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연간 7만대 수준에 그쳐 국내 수요(40만대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그리고 냉장고의 경우 수요는 100만대이나 국내 생산능력은 65만대 수준이다.

최근 기술 향상 및 생산력 확대를 위해 화란의 필립스, 스웨덴 일렉트로릭스, 독일 지멘스, 일본 도시바 등 다수의 외국 업체로부터 부품, 원료, 기술이전 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Pars Electric社는 3천대의 PC, 초미니 컴퓨터, 반도체 등 컴퓨터부품 생산라인을 일본으로부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中國, 資本·기술집약産業 급추격

-貿協 韓·中産業 비교우위 분석-

中國은 韓國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자본·기술집약적인 산업분야에서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수출증가율을 보임으로써 머지않아 이 부문도 중국우위로 반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韓國貿易協會가 조사·분석한 '중국무역의 발전과 우리의 대응'에 따르면 韓·中산업의 우위비교에 있어 현재 한국만이 輸出特化하고 있거나 한국의 수출특화정도가 중국보다 매우 높은 품목은 고무제품·사무용기기·전기기기·도로주행 차량등 9개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국만이 수출특화하고 있거나 수출특화정도가 한국보다 매우 높은 품목은 무기화학물·기타금속·비금속제품·여행용품·의류·신발·잡제품등 13개품목으로 조사됐다.

貿協은 중국 노동집약적 산업의 비교우위는 세계주요시장에서 우리제품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우위인 자본·기술집약적 품목에서조차 중국의 수출신장률이 한국을 크게 상회하며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등 선진국의 활발한 對中투자에 따른 역수입, 중국의 기술진보에 힘입은 품질향상등은 韓·中산업간의 비교우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89년-92년기간중 美·日시장에서의 비교우위변화를 살펴 보면 주요노동집약적 제품중 의류·신발·섬유제품·완구등은 한국우위에서 중국우위로 역전됐고 비금속광물제품·잡제품·식료품 등은 중국우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시장에서 우리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직물·가죽·고무·철강·기계류·음향기기, 일본시장에서 우위인 철강·사무용기기·정밀기기 등은 중국의 진출이 두드러져 우리의 우위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선진국(OECD)시장 전체적으로 85년~91년기간중 주요공산품의 수출성과를 봐도 한국우위품목은 6개품목에 불과한 반면 중국우위제품은 29개품목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4년간(89-92년) 미국·일본·EC 등 3대선진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에 있어 한국의 점유율은 모두 중국에 추월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주요수출산업별 현황 및 전망을 살펴 보면 섬유산업·철강산업등의 생산규모는 한국을 이미 능가하고 있고 전자산업·자동차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리고 있어 향후 한국과의 경쟁이 치열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貿協은 이같은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우리의 주종수출산업구조를 현재의 표준화된 기술, 중저가상품위주에서 후발국인 중국이 쉽게 추격할 수 없고 비교우위상 급속히 추격해야 할 필요도 없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중국의 급속한 소득증가추세에 맞춰 방대한 중국내수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건전지 신기술 개발 박차
-Zinc-Air, Nickel-Metal 기법 등-

휴대용 컴퓨터의 보급이 활성화 되면서 건전지 부문 신기술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건전기 기술은 Zinc-Air 및 Nickel-Metal 기술이 있으며, 소프트웨어를 통해 건전지 사

용시간을 연장시키는 기법 또한 개발되고 있다.

美國내 건전지 제조업체 Duracell Inc.는 Nickel-Metal Hybrid(Ni-Mh)를 이용한 건전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각 제품에 맞는 건전지를 별도로 개발할 필요없이 건전지 및 재충전 장치를 표준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Air Energy Resources Inc.는 Zinc-Air 기술을 이용해 휴대용 컴퓨터, 비디오 카메라 및 휴대형 전화기용 건전지를 개발하고 있다. Aer社의 Zinc-Air기술은 공기중에 있는 산소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성시키도록 고안되어 있다. 이 회사의 첫 제품인 'Power 20'는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용 전화기에 동시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용시간은 20시간에 달한다.

한편 소프트웨어를 통해 건전지의 사용시간을 연장시키는 기술은 Lucid Corp.에서 개발했는데 이 회사는 휴대형 컴퓨터용 'Battery Boost Notebook Utility Pack'을 공급하고 있다.

비디오 카메라, 휴대용 전화기, 무선 호출기 등 휴대용 전기·전자 제품과 휴대용 컴퓨터의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각 제조회사들은 건전지의 사용시간을 연장시키는 기술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칩, 보드 등 전력이 소비되는 각종 부품과 컴퓨터 및 모니터 등 완제품에서도 절전형 제품 개발에 투자해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一例로 美 IBM社가 개발한 절전형 컴퓨터(일명 녹색 컴퓨터)가 소비자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데, 향후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멕시코, 자동차용蓄電池 수입 急伸張勢
-輸入品 선호경향으로 年間 25% 이상 증가-

멕시코에서는 4개 주요업체가 자동차용 축전지를 생산하고 있으며 연간 생산량은 약 560만개 정도이다. 이들 국내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약 60% 정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생산은 매년 500만개 수준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반해 수입은 연간 25% 이상의 큰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자동차 수의 증가와 소비수준의 향상으로 품질이 떨어지는 국산품보다는 수입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용 축전지 수입은 90년 300만弗에서 91년 400만弗로 26.3%가 증가했고 92년에는 523만弗로 전년대비 30.1%가 증가했다. 주수입선은 미국으로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일본, 대만, 한국, 독일, 캐나다 등지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관세번호 8507.1001로 분류되는 자동차용 축전지는 수입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수입관세는 20%이다. 수입관세 이외에 부가가치세로 제세포함 가격의 10%가 부과되며 기타 세관 수수료로 송장 가격의 0.8%를 납부해야 한다.

새차에 장착되어 나오는 축전지는 대부분 조립사의 모기업에서 조달된다. 즉 현지에서 조립되는 GM, Ford, Chrysler는 모두 미국에서 부품을 들여오고 Nissan은 일본에서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다만 Volkswagen의 경우만은 축전지를 멕시코산 또는 제3국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수리부품시장을 겨냥해야 하는데 수리부품의 경우 가격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거의 자동차용 축전지가 수시로 물을 보충해주는 것이었던데 반해 최근 제품들은 운전자들이 물을 보충해줄 필요없이 정기검사시 1번씩 체크만 하면 충분한데 멕시코 시장에도 이러한 종류의 축전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산은 90년에 90만弗이 수입되었다가 점차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한국산에 대해서는 품질이 비교적 좋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91년 이후 가격이 상당히 상승한 반면 아직까지도 한국산은 값이 저렴한 제품으로만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인상 만큼 품질에 대한 인식이 올라가지 못해 수입이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자동차부품 전문 에이젠트 발굴, 자동차부품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홍보 강화, 가격경쟁력 제고, 자동차 조립사에 대한 판촉활동 강화가 요망된다.

• 국별수입실적 (단위 : US$)

국 별	1990	1991	1992
미 국	1,700,730	3,111,653	3,878,920
일 본	380,380	424,969	733,051
캐나다	595	11,965	244,152
대 만	47,584	96,029	172,375
한 국	903,286	313,437	61,920
독 일	17,476	24,038	48,379
계	3,184,428	4,022,774	5,235,574

* 자료 : SECOFI (멕시코 상공부)

日 富士電機, 중국에 소형모터 제조회사 설립
-'94. 7월 생산 계획-

일본 富士電機는 1993년 6월 22일 중국에 단상모터를 주최로한 소형모터 제조회사를 설립하여 1994년 7월부터 생산을 계획한다고 발표하였다. 생산제품의 70%는 일본을 시작으로 전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30%는 중국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 등 현지에 공급할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단상모터는 에어콘용 팬모터 등의 수요가 급증함과 함께 일본계 에어콘 메이커의 중국 진출이 잇달아 있으므로 현지에 제조거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새로운 회사 명칭은 「大連富士馬達有限公司」로 6억엔을 투자 변녕성 대연시의 경제기술개발구 가운데에 설치되며, 단상 모터를 주최로한 소형모터의 부품가공에서 조립까지 일괄 생산한다. 회사 자체는 금년 7월중에 설립할 예정이며 공장은 내년 7월 1일에 조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자본금은 5억엔으로 본사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로 단상모터의 설계·개발을 담당하는 부사전기정기를 통하여 출자한다.

공장택지는 5068m², 건물은 4000m²(3층건물)이며, 종업원수는 당초 약 100명으로 시작하여 수년내에 250명으로 증원계획이고, 생산량도 월 30,000대 규모로 시작하여 사업동향을 파악하여 수년후에는 년간 120만대까지 올릴 계획이다. 부품에 대해서도 당초에는 대부분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순차적으로 현지 조달분을 증가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

부사전기는 단상모터에 대하여 부사전기정기가 설계·개발하고 부사전기정기의 삼중현(三重縣) 내의 협력회사가 생산을 하며, 부사전기 Root로 판매를 전개하는 체제를 갖는다.

부사전기는 현재 년간 240만대 정도 생산을 하며 국내의 복수 에어콘 메이커에 OEM 공급하는 한편 미국, 동남아시아 지역에 판매를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에어콘용 팬모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에 거점을 설계하는 일본의 에어콘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日, 교류용 초전도 자석개발
-초전도 선재로써 세계 최고치-

일본 고하전기공업은 최근 구주대학 공학부, 구주공업대학 정보공학부와 공동으로 니오브·티탄 합금 초전도 선재로써 세계 최고의 임계 전류 밀도인 1mm²당 4,250A를 흘리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인공핀 도입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조법을 이용하여 실현한 것이다. 또한 이 선재를 사용하여 교류용 초전도 자석을 제작, 상용주파수의 교류 운전에 성공했다. 전류밀도가 높기 때문에 적은 선재량으로 성능이 높은 초전도 장치를 만들 수 있다. 추후 초전도 에너지 저장 장치, 초전도 발전기 등의 대규모 응용에로의 적용을 목표로 실용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얻은 값은 액체 헬륨온도(절대온도 4.2도)에서 5데스라(자속밀도의 단위)에 있어서 임계 전류 밀도가 1mm²당 4,250A를 달성한 것이다. 현재의 실용 니오브·티탄 합금 초전도 선재는 5데스라에서 2,500A의 수준이다. 연구실 기준에서는 4,000A가 한계이었으나 그 벽을 세계 최초로 돌파한 것이다.

이번 선재는 인공핀 도입법이라고 하는 제조법을 이용한 것으로 종래의 시효석출 열처리법(時效析出 熱處理法)에 비하여 장시간이 요구되는 열처리 공정이 필요없고 초전도체에 발생하는 양자화 자속을 고정하는 핀고정점이 되는 티탄이나 니오브를 이론계산에 맞게 인공적으로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는 핀 재질은 니오브, 핀 크기는 10mm, 핀 가격을 20mm로 설계하였다. 임계 전류의 제어는 핀 고정점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 효율을 얻을 수 있기에는 핀고정점의 성능이 중요하다. 시효석출 열처리법은 열처리에 의해 니오브·티탄 합금내에 핀 고정점으로써 티탄을 석출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핀 고정점의 크기제어 조건이 미묘하고 가공열처리 공정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여 4,000A를 돌파하는 것이 곤란하였다.

이번 개발한 인공핀 도입법을 적용하여 교류용 초전도 자석을 개발, 제작하였다. 선의경은 0.16mm, 외경 0.3μm의 니오브·티탄합금 필라멘트를 79,000본 내장한 교류용 초전도 선재를 이용하였다. 자석은 내경 3, 외경 7.5, 높이 6cm의 소형이나 60Hz의 사용 교류 통전실험을 실시한 결과 종래의 초전도재에서 곤란했던 전력용량 105KVA, 최대 발생자계는 2.5데스라에 달하였다.

자석을 사용한 선재의 임계 전류 밀도는 종래의 수배이상이며 장치제작에는 선재량이 적기때문에 경제성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한다.

日, 순시전압강하 보상장치 개발

-明電舍, 업계 최초 개발-

일본 明電舍는 7월 14일 四國總合研究所와 공동으로 자가용 발전설비를 갖춘 공장, 플랜트용 등에 적합한 "순시전압강하 보상장치"를 업계에서는 최초로 개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장치는 통상의 전력계통과 자가발전을 동시 병용하고 있는 공장등에서 계통에 순시전압 강하가 발생하는 경우에 계통을 순간적으로 교체하여 자가발전기의 순시전압 강하를 막아 중요기기에서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장치이다.

플랜트나 공장등의 구내에 있는 변전소의 계통측과 자가발전측의 접점부에 싸이리스터를 사용한 반도체 개폐기를 설치하여 계통에 순시전압강하가 일어나도 고속스위칭 기능으로 불과 0.02초(1싸이클)로 계통을 분리한다.

따라서 병원설비와 PC등의 기기를 순간전압강하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 계통의 회복시에는 발전기 전압, 주파수와 위상차가 설정범위내 있으면 자동적으로 스위칭시켜 계통과 자가발전의 연계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장치의 Key Component인 반도체 개폐기는 정격전압이 7,200V, 정격전류 400A로 내전압 4,200V, 내전류 1,320A의 싸이리스터소자를 30개 사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CVCF등에 이용되고 있는 저전압용 반도체 개폐기는 있으나 고압의 개폐기는 처음이다. 향후 소자가 보다 고내압화, 대전류화 한다면 더욱 큰 전압의 개폐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이 장치의 기능검정은 작년말에 사국총합 연구소의 Cogeneration System으로 행해졌고 양호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집트, 電線등 52개 品目 輸入開放

-모터등 44개品目 關稅引下-

이집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등 총 52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해제조치 및 44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등을 포함한 대폭적인 수입개방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수입개방조치는 당초 예상보다 대폭적인 규모로 이루어졌으며 이 조치로 수입금지 품목은 현행 78개에서 26개로 대폭 축소되었다.

또한 금번 關稅率 인하조치로 자동차, 술, 담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관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80% 이내 범위에서 적용된다.

- 주요 輸入開放 품목 : 냉장고, 에어컨, 컴프레서, 전기 보일러, 전선 등
- 추가 輸入監視 대상품목 : 전등, 전선 등
- 輸入禁止 잔존 품목 : Water meter, 배터리, Chain, Breake lining & Debrayage lining 등
- 輸入關稅 인하품목 : 에어컨, 농기계, 관개용기계, 모터 등

금번 수입 개방조치의 배경을 보면, 첫째 지난 7월 23일 이집트·IMF간 외채상환 조정 협상시 이집트 정부가 IMF의 수입개방 확대조건을 적극 수용하는 대신 총 40억5천만弗의 외채 탕감 문제가 해결되었고, 둘째 관세구조 왜곡 시정을 통해 종래 일부 중간재가 최종 완제품보다 관세율이 높아 발생했던 제조업 발전의 각종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셋째 자국 유치산업을 보호할 최소한의 품목만을 남기고 輸入開放을 실시함으로써 산업분야별 자유경쟁체제 도입확대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취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금번 수입개방조치에 자동차, 전자제품 등 우리의 수출 주종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어 對이집트 수출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이 확실하며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이집트 시장개척 활동이 요망되고 있다.

반면 이집트 정부가 수입개방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수입품 품질 검사를 강화하고 不公正 무역관행을 보다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하는 등 수입개방 확대조치 초기에는 비관세 장벽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업체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政府調達확장협상 연내妥結
-韓電 조달시장 개방 불가피-

GATT정부조달 확장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국내업계의 대응책 마련이 긴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GATT정부조달 확장협상에서 협정 가맹국들은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의 타결목표시한인 금년말까지 정부조달 확장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가맹국들은 이를 위해 국가별양허안을 오는 10월 15일까지 GATT사무국에 제출한 후 2개월간의 집중협상을 통해 협정을 타결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작년 5월 GATT사무국에 제출한 양허안중 중소기업제품과 농수산물등 취약분야에 대한 협정적용 배제에 협상력을 모으고 필요할 경우 홍콩·싱가포르·이스라엘과의 공동대응 방안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조달확장협상은 각국 중앙행정기관의 13만SDR(약 1억3천만원)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현행협정의 적용대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의 통제 또는 영향력 아래에 있는 기관의 모든 물품과 서비스, 건설조달로 확대하기 위한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협정가입을 목표로 작년 5월 총 48개 중앙정부기관중 43개 중앙정부기관의 물품과 서비스, 건설구매 등에 대한 개방을 내용으로 하는 양허안을 제출했었다.

한편, GATT 정부조달 확대 협상에서 미국을 비롯한 일본·EC 등 회원국들은 韓電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韓電 조달시장 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장에 의존해온 우리 重電業界도 상당한 영향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韓國電機工業振興會에서는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에 따른 우리 業界의 인식제고 및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9월 15일 "GATT 정부조달 협정가입이 重電業界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품질보증시스템 상호認定

-韓·濠, 協定체결-

한국에서 발급되는 국제품질보증시스템(KS 9000/ISO 9000)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되는 길이 트이게 된다.

공업진흥청은 한국의 대표적 품질인증 기관인 한국표준협회와 호주 국가표준기관인 호주표준협

회(SA)가 상호인정 협정체결을 승인함에 따라 표준협회에서 한국·호주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협정이 체결된다고 밝혔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표준협회가 발급하는 KS9000/ISO9000인증서는 호주표준협회에서 발급하는 AS3900/ISO9000인증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며 향후 호주정부의 구매나 입찰참여 또는 호주 수출시 요구되는 ISO9000인증서를 대신할 수 있음으로써 호주내에서의 한국상품 품질신뢰도를 높이고 호주수출에 대한 무역장벽도 해소시킬 수 있다.

호주는 영국과 함께 ISO9000규격 제 개정을 주도하는 국가로서 이 협정이 체결되면 호주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영국·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과의 상호 인정협정 체결도 촉진시키는 효과를 함께 얻게 된다.

또한 공업진흥청 관계자는 한국의 표준협회 인증서가 호주에서 인정됨으로써 영국·싱가포르등 호주와 이미 상호인정 협력을 체결한 국가내에서도 자동적으로 효력을 인정받는 연쇄효과가 있다고 밝히면서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과의 상호 인정 협력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大型 중공업체 發電設備시장 참여 본격화

-外國社와 기술도입·제휴강구-

정부의 민자발전 허용 방침에 이어 발전설비분야에서 일원화 조치가 조만간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내 중공업업체들의 대형 사업용 발전설비제작에 대한 준비작업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전소 건설에 민간업체 참여를 허용키로 한데 이어 현재 한국중공업이 독점 공급하고 있는 발전설비분야에서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대형중공업체 중심으로 대형 사업용 발전설비분야에 대한 본격적인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일원화 조치 이전부터 발전설비 분야에 참여해온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은 최근들어 사업용 대형발전설비분야에서 과거 기술제휴선을 맺은 외국업체와 기술 제휴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한편 터빈·보조기기 분야에서 선진 외국업체와의 기술 제휴를 본격 모색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전에 제휴를 맺은 미 B&A(BABCOCK & WILCOX)社와 대형발전설비 분야에서 제휴관계를 다시 다지는 한편 이미 가스터빈 분야에서 스웨덴의 ABB社로부터 기술 도입 계약을 맺은데 이어 공해방지설비 등 보조기기분야에서 독일업체로부터 기술도입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기존 제휴선인 FOSTER WHEELER社 외에 日 히타치(日立) 및 이시카와지마(IHI)社로부터 보일러제작기술을 도입한데 이어 최근 日 도시바社와 발전설비 전반에 걸쳐 기술제휴 계약을 체결, 사업용 발전설비 분야에서 기본설계부터 제작·시공에 이르는 전체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들업체들은 정부의 발전설비 발주 일원화 조치 이후에도 해외 소형 발전설비나 열병합 발전설비 수주 실적을 꾸준히 쌓아오기는 했으나 500MW급 이상의 대형 발전설비분야에서 참여가 아예 봉쇄당했기 때문에 발전설비분야의 시장 개방에 앞서 국내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빠른 시일내 발전설비 공급 일원화 조치를 해제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 중공업업체들은 정부의 발전설비 공급 일원화 조치 해제가 이루어지더라도 발전설비 본격 제작에 앞서 보일러·터빈 등 대형 사업용 발전설비 핵심기기 제조에 엄청난 투자가 선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중공업업체중 한라중공업과 쌍용중공업·삼성항공도 최근 외국업체와 기술제휴를 통한 가스터빈 제작 참여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한라중공업은 독일 지멘스 및 이탈리아 누오보삐뇨네社에 이어 美 스튜어트 스티븐슨社와 가스터빈 분야에서 제작공급협력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저 5백KW급에서 최대 20만KW급 용량까지 전기종의 가스터빈 발전설비를 제작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놓고 있다.

쌍용중공업은 지난 6월 일본 니가타社와 750KW-4000KW급의 저공해형 가스엔진에 대한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삼성중공업은 러시아 기술자들과 공동으로 2KW짜리 가스터빈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산업피해 救濟申請 간소화
-수입실적등 調査項目 대폭축소-

산업피해구제 신청절차가 크게 간소화 된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시장개방과 수입자유화 확대로 외국으로부터의 덤핑 공세 및 수입 급증에 따른 국내산업의 피해가 증가,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청서식을 품목별 특성에 맞춰 개선하고 첨부자료 제출도 간소화 시키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개선을 통해 신청서식을 산업피해조사신청서의 경우 공산품, 농림수산물, 무역 및 유통서비스, 지적재산권 침해등 4개분야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서등 총 5개분야별로 별도로 마련했다.

특히 농림수산물의 경우는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업계의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영세 농어민들이 주이용대상인 점을 감안, 농협 및 농촌경제연구원등 관련 연구기관의 자문과 의견을 수렴, 기존 조사항목중 국내수입업체별 수입실적과 외국업체의 對韓수출증대가능성 등 15개 항목을 삭제, 신청서식을 대폭 간소화했다.

또 신청서내용중 신청품목관련 무역계획과 수입업체일반현황, 규격별 수입실적 등과 같이 요구하는 항목이 너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가 많아 신청인이 작성키 어려운 주요통계와 전문적인 부문은 대폭 삭제 또는 간소화, 신청인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했다.

대신 조사에 필요한 관련통계들은 무역위원회가 정부 및 관련기관의 자료를 조사, 신청인의 편의도모와 자료의 신빙성을 높이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이번에 개선된 신청서식 등 약 160여 페이지에 달하는 '산업피해구제신청서식집'을 제작,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농협, 수협등 업종별 관련단체 및 관련기관에 배포했다.

세계工場 自動化시장 급성장
-연평균 6% 성장…2천년 917억DM 규모-

90년대 들어 세계 공장자동화시장이 정보통신공학과 결합되면서 급팽창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공장자동화시장이 최고의 신장률을 과시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미래산업중 하나인 환경산업분야에서 공장자동화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스위스의 인테크노 컨설팅社는 최근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세계 공장자동화시장이 90년대 중 연평균 6%씩 성장, 오는 2천년경 총규모가 917억마르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뒤셀도르프전시협회(NOWEA)의 의뢰로 조사된 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공장자동화시장 규모는 538억마르크를 기록했는데 이중 395억마르크는 공장자동화관련 상품 및 자동화시스템이 차지했고 143억마르크는 자동화관련 기술 등 각종 서비스가 차지했다.

지난 해의 공장자동화수요를 산업별로 보면 유화 및 제약분야를 제외한 화학산업이 195억마르크를 차지했고 발전산업 부문이 95억마르크를 차지, 2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중 최고의 수요성장률을 나타낸 산업분야는 전년비 11.7% 증가한 환경산업이었다.

지역별 수요로 볼 때 아시아·태평양지역이 9.7%의 수요증가를 보여 1위를 차지했고 서유럽, 북미 등이 각각 6.5%, 5.3%의 신장률을 기록하면서 그 뒤를 따랐다.

동유럽지역도 공장자동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는 있으나 이를 뒷받침해 줄 재원부족과 정정불안으로 90년대말에나 실질적인 수요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테크노 컨설팅社 분석가들은 향후 공장자동화산업이 종전의 하드웨어중심에서 소프트웨어중심으로 전환될 것이며 기술서비스가 더욱 중시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또 공장자동화기술이 정밀계측 기술과 함께 정보공학, 통신공학 등과 결합돼 보다 입체적이고 총체적인 자동화를 지향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와 아울러 기존의 대기업 위주에서 탈피,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점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표 및 특허 정보자료 이용 안내

특허청에서는 상표 및 특허 정보자료를 각시도 상공회의소 및 시립도서관 등에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단말기를 특허청 열람실 및 민원안내실, 대한변리사회, 한국발명특허협회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말기 설치 장소

설 치 장 소	소 재 지	전 화 번 호
특 허 청 열 람 실 민 원 안 내 실	강남구 역삼동 823-1 풍림빌딩 12, 17층	(02) 568-8151 (교환 261) 568-6074
대 한 변 리 사 회	강남구 역삼동 831	(02) 552-0882~5
한 국 발 명 특 허 협 회	강남구 역삼동 143-19 (발명장려관)	(02) 551-5571~72

• 소재지 및 비치자료 내역

〈상표 및 특허 정보자료 열람소〉

각시도별	지정기관	소 재 지	비 고
서울특별시	서울상공회의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	(02)316-3446
부산직할시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직할시 진구 범천1동 853-1	(051)645-7771~5
대구직할시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직할시 동구 신천3동 107	(053)755-0041~6
인천직할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직할시 중구 사동 9-1	(032)761-2900
대전직할시	대천상공회의소	대전직할시 중구 은행동 142-2	(042)253-9826
광주직할시	광주상공회의소	광주직할시 서구 농성동 652-2	(062)364-5600
수 원 시	수원상공회의소	경기도 수원시 정자동 80-17	(0331)44-3453
청 주 시	청주상공회의소	충청북도 청주시 북문로2가 116-84	(0431)52-0022
마 산 시	마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 마산시 산호동 17-5	(0551)41-4121~5
창 원 시	창원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창원시 신월동 97-6	(0522)74-2111~6
울 산 시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 울산시 신정동 589-1	(0546)54-6601
구 미 시	구미상공회의소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동 454	(0652)87-6417
전 주 시	전주시립도서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464-1	(0361)54-3887
춘 천 시	춘천시립도서관	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산 9-3	(064)57-2164~8
제 주 시	제주상공회의소	제주도 제주시 2도 2동 1176-53	

〈비치 자료 내역〉

자 료 명	소 장 년 도	이 용 방 법
공 개 특 허 공 보	'83년부터－현재	공개번호순에 의한 열람·복사
특 허 공 보	'63년부터－현재	공고번호순(또는 분류순)에 의한 열람·복사
공개실용신안공보	'83년부터－현재	공개번호순에 의한 열람·복사
실 용 신 안 공 보	'63년부터－현재	공고번호순(또는 분류순)에 의한 열람·복사
의 장 공 보	'78년부터－현재	등록번호순에 의한 열람 복사
상 표 공 보	〃	공고번호순에 의한 열람 복사